

[온누리 가정축제(OFC)]

주제강의1 : 클릭(Click)! 남편에게

이상규 목사 / 페이지 수: 3

집이란 건축이 잘 되고 멋진 인테리어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집(house)이지만 홈(home)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정은 인간의 노력, 성실, 재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장손으로 주위의 기대를 받으며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저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매일을 보냈습니다. 건축가인 아버지가 지은 저희 집은 그런 저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저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며 새로운 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저희 집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희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말며느리로서 제사 드리던 것도 다 바꾸셨습니다. 제가 제대 후 신학을 할 때도 어머니께서 제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주님이 거니시는 집이 되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용서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에덴이 임하게 됩니다.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집이 아닙니다. 참된 집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거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머무는 사람은 주부입니다. 주부에게 집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드나들며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집이 홈이 되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단순한 편지 글 이상입니다. 아내의 얼굴 표정, 말 한마디, 음식 등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가정을 에덴으로 가꾸는 이해

집이 하나님의 에덴으로 변하려면 목마름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목마르고 섭섭하고 허전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나 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부부는 서로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해결은 주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의 중심은 남편, 아내, 아이가 아닙니다. 창조질서에게 본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음성을 듣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될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이용당하는 사람은 무의식에서부터 분노가 생깁니다. 한 인격적 존재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참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존과 종속의 관계가 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호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과 개

인적인 관계를 각각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운 순전한 메시지

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들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마 식사 생각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식사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느라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분노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른 상태에서 일했기 때문에 섭섭한 감정이 든 것입니다. 주님을 음식으로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영원한 양식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에게는 조용히 그의 음성을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좋은 섬김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깊이 듣는 남편과 아내가 됐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유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채워진 사람은 매이지 않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자기부인도 할 수 있고 자기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은 의존할 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아내는 남편에게 순전한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미소가 순전하고 말이 순전하고 짜증이 없고 잔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메시지는 남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는 감동

저는 개인적으로 부엌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식탁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채워진 마음으로 식탁을 차릴 때 특별한 식탁이 됩니다. 식탁은 아내에게 지긋지긋한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베푸는 영성의 자리입니다. 로렌스 수사는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일터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법을 유지한 것입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곳곳을 다니며 우릴 위해 일하셨고 최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숙하고 다 자란 재료로 요리를 하고 마음을 쏟아 영원한 양식과 음료로 베풀 때 정성을 다한 '요리'는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영원한 양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엌의 아내들은 집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또 아내의 '말'은 메시지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마음 가득히 목상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원한 양식과 음료의 감동을 줍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이해를 해줄 때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나의 존재, 생애, 명예, 좋은 것 모두를 한순간에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는 말은 결정적입니다. 아내가 용서한다는 말은 죄인처럼 벌거벗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있는 남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의 선포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결혼해 살다보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가정은 없을 겁니

다. 성격차이, 재정, 자녀 교육 등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한다면 선과 생명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갈등과 질투와 눈물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가정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가정 전문사역자들이 말하는 좋은 가정에서 보내신 게 아니라 역기능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기능 가정에서 메시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선한 일을 위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